

최신 방송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주)산앰텍

+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방송과기술 ParTner 탐방기

방송과기술과 함께하는 파트너를 소개하고,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첨단 방송기술은 최상의 방송장비로 구현됩니다. 영상, 음향, 네트워크, NLE, 전송 등 많은 방송장비가 있고,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사람의 몫입니다. ParTner 탐방기는 바로 이런 방송장비회사의 역사와 비전을 알아보고,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고민과 소망 등을 같이 공유하는 장입니다. 진솔한 이야기와 구성으로 매달 찾아가겠습니다.



회사명

(주)산앰텍(SanAm Technology Inc.)

창립일

1994년 2월 21일

대표이사

오정선

직원수

15명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9길 17 201/301호

홈페이지

www.sanamtech.co.kr

(주)산앰텍(山 岩 TECH) 소개

현재 송출과 전송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을 비롯한 방송장비와 의료장비, 전자부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성실하고 신용 있는 정직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는 기업, 산앰텍.

산앰텍은 1977년 해외방송솔루션을 국내 도입하기 시작한 1세대라 할 수 있으며, 세통상사에서 분리, 1994년 산앰텍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방송시장으로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산앰텍은 대표적으로 세계 최초로 선거방송에 가상스튜디오를 도입하여, 이를 계기로 국내에 본격적인 가상스튜디오 시장을 열었으며, 디지털 중계차, 다채널 송출 서버, 디지털 전환시점에 디지털 마이크로 웨이브, 엔코더 등과 실질적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비압축 방송 통합망 서비스와 최근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등 다양한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솔루션을 가장 앞서 소개하고 준비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인 지금의 방송시장에 적합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산앰텍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솔루션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술 선도 기업’을 목표로 산앰텍은 Ericsson 사의 엔코더, Envivio 사의 HEVC 엔코더, Net Insight 사의 광전송 네트워크, WorldCast Group의 Egreso 6세대 FM송신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전송과 송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 관련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산앰텍 연혁

1994. (주)산앰텍 설립

1996. KBS, SBS에 Shook 디지털 중계차 국내 최초 도입.

2000. 세계 최초 가상 스튜디오를 SBS 선거 방송에 도입

KBS 최초 HD 방송을 위해 Tandberg Television(현 Ericsson)사의 엔코더 공급

2003. KBS 라디오 디지털 시스템 전환 사업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00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Software 개발 및 공급 영업 실시



ERICSSON AVP 엔코더

- 2005. 글로벌 미디어 전송 솔루션 회사인 Net Insight사와 대리점 계약 체결
- 2007. SBS 비압축 통합 전국망을 KT를 통해 Net Insight사의 Nimbra 솔루션 공급
- 2010. 멀티스크린 솔루션 회사인 Envivio사와 대리점 계약 체결
국내 최초 다채널 멀티스크린 서비스인 CJHellovision Tving을 위한 Envivio사의 엔코더 공급
- 2011. LG LTE망을 이용한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해 Envivio사의 트랜스코더 공급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Net Insight사의 Nimbra 솔루션 지원
- 2012. KBS 비압축 통합 전국망 구축 사업을 위한 Net Insight사의 Nimbra 솔루션 KT에 공급
LG Second TV service를 위한 Envivio사의 엔코더 공급
- 2013. Ingest 및 MAM 솔루션 회사인 Metus와 대리점 계약 체결
JBC에 Metus사의 MAM과 Ingest 시스템 공급
KNN에 World cast의 계열사 Ecreso의 라디오 송신기를 중계소에 공급
세계 최초 HEVC 엔코딩을 이용한 멀티스크린 서비스 live 데모 시연
집약형 Head-end system 회사인 AppearTV사와 대리점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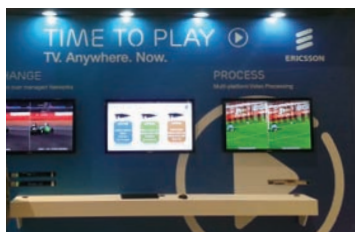


- 1. 오정선 (주)산애크 대표이사
- 2-3. 사무실 모습, 책장 위쪽의 창과 내부
- 4-5. 산애크의 데모실, 여러 장비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Partner & Product



Envivio® Envivio는 방송이 가능한 모든 사용자 장치 즉 TV, 태블릿, 모바일폰, PC 등, 사용자 단말을 지원하는 방송용 엔코더를 기반으로 QCIF부터 4K까지 모든 해상도와 다양한 대역의 스트림전송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는 HEVC 기반의 스트림 전송과 광고를 위한 각종 모네타이즈 솔루션들을 제공한다.



ERICSSON Ericsson은 통합 전송시스템의 선두주자로서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모든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며, 고품질의 Low Delay 장비 및 4K 전송 장비 및 Microwave 장비 등을 제공한다.



net insight Net Insight는 광대역 미디어 전송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공급업체로서 10G, 2.5G 등의 Fiber 또는 IP 네트워크에 압축, 비압축의 모든 미디어 자원을 원거리에 자유롭게 전송 가능한 솔루션이다.



WorldCast Systems Worldcast는 라디오 방송 전송을 위한 오디오 코덱, Transmitter, 계측 장비들의 통합 시스템을 제공한다.



.ii metus Metus는 1998년에 설립된 비디오, 오디오 및 이미지 등 미디어 자산관리(MAM)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선도적인 개발업체이며 방송국,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65개국, 500개 이상의 고객들이 애용하고 있는 솔루션이다.

Appear TV Appear TV는 다채널 전송을 위한 Head-End system 공급 업체로 모듈화, 집적화, 무순단교체의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가장 투자대비 운영측면에서 효율적인 Head-End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 하고 있다.

Interview 오준석 (주)산앰텍 전무

산앰텍(山 岩 TECH)이라는 사명이 특이한데, 어떤 뜻이 있는지요?
네, 산앰이라는 명칭은 저희 사장님의 고향이신 울산의 산앰이라는 지역명을 딴 것도 있고, 사장님의 호가 산앰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초심의 의미를 담아 성장해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1994년 2월 21일 회사설립 후, 지금의 산앰텍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원래 사장님께서서는 세통상사의 방송장비 오퍼로 시작을 하셨다가 따로 분리되며, 현재의 산앰텍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방송장비의 국산화가 그 당시에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외의 좋은 솔루션을 공급하는 쪽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특히 2~3년 미리 방송시장을 내다보고, 솔루션을 준비하는 노력이 산앰텍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앰텍은 국내 최초로 가상스튜디오 솔루션을 도입하기도 했고, 송출 서버도 70%의 점유율로 지상파 및 케이블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못 하고 있지만 M/W 시장에서도 98%의 공급률을 보이기도 했었고, 광전송을 통한 비압축 통합망 공급, N-스크린 시스템을 위한 Envivio 엔코더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CJ의 Tving 서비스 런칭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산앰텍은 전송, 송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솔루션을 제공해 왔는데, 주요 사업 부문에 대한 소개와 최근 집중하고 있는 분야, 관련 동향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우선, 디지털을 앞두고 있는 라디오 송신기를 포함한 모든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디지털은 전환이 아닌 도입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날로그에 디지털 방식이 추가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디지털 수신기는 청취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도 하고, ITU가 관리하는 FM Band는 고정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도 꾸준히 송출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1KW 이하의 소출력 제품들이 시장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2곳에 공급을 완료했고, 추가로 한 곳의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전송 솔루션의 경우 현재 급속도로 방송시장이 변하고 있기에 3D도 고려해야 하고 4K의 수용도 고려를 해야 하며, 최신 동향으로는 4K와 모바일 쪽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효율 압축이 가능한 HEVC라는 새로운 엔코딩 방

식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산앰텍은 국내 최초로 HEVC N-스크린용 Live 데모를 진행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솔루션 등을 미리 파악하여 국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전송을 이용한 비압축 통합망 구축 및 다른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지요?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통신사의 광전송망인 SDH망을 사용하고 있지요. 5년 전에는 2.5G 망을 이용했다면 현재는 10G 망을 구축 중입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통합망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개별채널(서비스)로 통신사에서 구입할 경우 비용이 늘어나기에 통합망을 이용해 대역폭을 늘리고,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정성 등을 올리는 것이 현재 송출 분야의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스크린 쪽에 비즈니스 모델의 정착이 안 되다 보니,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2~3년의 안정기간이 필요한 국내 N-스크린 시장에 산앰텍은 제품 솔루션을 비롯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에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겟 광고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회사 복지에 대해 산앰텍이 시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각 장비의 본사 해외 교육은 지속해서 하고 있고, 전달 교육 역시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헌으로는 '라파엘의 집'이라는 복지시설에 1년에 한 번 정도 장애투를 돕기 위해 지원 및 기부를 하고 있으며, 회사 복지로는 사원의 결혼기념일에 휴가를 지원하거나 어린이날 선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과 앞으로의 계획

성장을 위해 방송 솔루션 공급 외에 향후의 트렌드가 될 새로운 솔루션을 앞서 준비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고, 서비스 형태로 방송사나 미디어 회사에 도움을 드릴 예정이며, 솔루션들이 SW 기반으로 가고 있는 것에도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4K, HEVC, N-스크린 영역에도 지속해서 솔루션 준비를 할 예정이오니 산앰텍의 행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대경바스컴

대경바스컴, 젠하이저 일렉트로닉 아시아의 '올해 최고 파트너사'에 선정

채널 개발 및 영업실적, 기술 지원 부문에서 최고 실적 기록



대경바스컴(대표 한대현 www.dkvascom.co.kr)은 독일 음향 전문업체 젠하이저 일렉트로닉(Sennheiser Electronic GmbH & Co KG)으로부터 '올해의 최고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젠하이저는 매년 각 지역의 최고 파트너사를 가리는 '파트너 어워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최고의 성과를 거둔 파트너들을 이번에 선정해 발표했다. 대경바스컴은 지난 한 해 동안 뛰어난 영업실적은 물론 고객 지원 및 기술 지원 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의 최고 파트너사'로 선정되었다. 대경바스컴은 산업용 음향기기 및 시스템을 유통하는 전문업체로, 20년 이상 젠하이저 일렉트로닉의 유·무선 제품 시리즈의 국내 유통을 담당해 왔다.

젠하이저 일렉트로닉 아시아의 응치순 사장은 "앞으로도 젠하이저는 각 지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공조와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은 물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민 대경바스컴 마케팅 기획이사는 "지속된 불경기로 인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젠하이저와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지원을 추진해 온 덕분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젠하이저 브랜드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소비코

권대현 대표이사 사장 취임



권대현 소비코 사장(사진 출처 월간PA, 김용일 팀장)

약력

1997. 7 조지워싱턴대학교 전자전산공학과 석사졸업

1998.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1. 8 KAIST 전산학과 박사과정

2002. 2 ㈜알티캐스트 2002. 2 주식회사 소비코 상무이사

2003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기획이사

2006 숙명여자대학교 멀티미디어과학과 겸임교수

2011 한국음향학회 협동부회장

2012. 7. 25 주식회사 소비코 공동대표이사

2013. 8. 1 주식회사 소비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

그 외 연세대학교컴퓨터학과, 서울예술대학 디지털아트학부, 숭실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프로페셔널 음향 시스템 전문 기업 (주)소비코(www.sovico.co.kr, 공동 대표이사: 권경섭, 권대현, 이하 SOVICO)는 2013년 8월 1일, 권대현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대현 대표이사는 지난 2002년 이래 SOVICO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를 거쳐 지난 2012년 부사장이자,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데 이어, 2013년 8월 사장으로 취임,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SOVICO의 2세대 대표이사로서 앞으로의 전통을 잇게 되었다.

권대현 대표이사는 입사 후, 2002 한일월드컵 개막식 음향 파트를 진행한 계기로 대한축구협회를 공식 후원하며 개막식, 폐막식, 출정식 및 각종 축구경기 관련 행사에 음향 시스템을 후원한 바 있으며, 서울국제영화제, 대원음악상, S.M.ART 전시, PSY Happening 콘서트 후원 등 업계에서는 독보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후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권대현 대표이사는, "SOVICO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는 정직과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다. 평소에 '기업시민'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시민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듯, 기업은 기부 혹은 후원 활동을 통한 사회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음향 분야에서 필요한 곳에 도움을 나누고, 우리나라 음향 업계를 넘어 보다 폭넓게는 문화 콘텐츠 발전을 통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로 전환해가는 음향 업계의 전환의 트렌드를 읽고, 네트워크 오디오라 불리는 디지털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오디오, 영상, 조명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업체로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삼아프로사운드(주)

Shure 무선시스템 보상판매 및 업그레이드 서비스 실시



Shure 브랜드의 국내 수입사인 삼아프로사운드(주)는 금년 8월부터 700MHz 무선마이크 제품 및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무선마이크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자사 무선마이크 시스템의 보상판매를 연장 실시한다. 이번 보상판매는 Shure 브랜드의 신제품인 BLX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고, Shure 브랜드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기종을 반납 시에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무선마이크 구매가 필요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 판매되었던 자사 900MHz 무선마이크 제품의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실시하여 작년 12월 5일자로 개정된 국내 무선마이크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자사 제품이 12.5MHz로 확장된 보다 넓은 900MHz 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제품은 무상으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본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삼아프로사운드(주) 고객센터원사로 의뢰할 수 있고, 10채널 이상 무선마이크 사용자에게 한하여 출장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일부 품목에 적용, 출장비 별도)

무선마이크 보상판매 및 업그레이드 서비스 문의:

삼아프로사운드(주) 고객센터원실 노혁진 과장/ 이정연 대리(02-734-0653)

대상품목 (925-932MHz)	서비스 비용	서비스 실시	서비스 종료
MW	유상	즉시	~2013-12-31
ULX-D	무상	즉시	
ULX	유상	예정	
SLX	유상	예정	
PSM1000	무상	즉시	
PSM900	유상	예정	
FP	무상	예정	

삼아프로사운드(주) Shure 올해의 Outstanding Marketing Performance 상과 Outstanding System Sales 동시 수상

또한, 삼아프로사운드는 지난 2013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Shure Asia Distributor Summit 2013에서 올해의 Outstanding Marketing Performance 상과 Outstanding System Sales를 동시 수상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Outstanding System Sales상은 설치 현장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국가의 Shure 공식 수입사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나타낸 국내 설치 음향 시장에서의 성과가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하이픽셀

블랙매직디자인 4K 솔루션

전국 로드쇼 개최

한국 공식디스트리뷰터 (주)하이픽셀, 레오미디어(주) 주최

블랙매직디자인의 한국 공식 디스트리뷰터 (주)하이픽셀은 레오미디어(주)와 함께 2013년 10월 4K 프로덕션 솔루션 전국 로드쇼를 개최한다. 블랙매직디자인이 올해 4월 NAB 쇼에서 발표한 6G-SDI 신기술이 적용된 솔루션에 대한 소개 및 이해를 중점으로 하여 전체적인 솔루션 구성을 제안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작년 NAB에서 첫 카메라(Blackmagic Cinema Camera)를 출시하여 이목을 집중 받았던 블랙매직디자인이 올해 야심차게 출시한 Blackmagic Production Camera 4K는 세계 최초로 6G-SDI를 지원하는 4K 카메라이며, 슈퍼 35센서, ProRes 코덱, Cinema DNG RAW, 글로벌 셔터를 탑재했다.

또한 세계 최초의 4K 스위처인 ATEM Production Studio 4K는 6G-SDI를 지원하며 4K 실시간 스위칭을 구현한다. 여기에 4K 레코딩 및 재생을 지원(1.5G quad link, 3G dual link, 6G-SDI를 모두 지원한다.)하는 Hyperdeck Studio Pro를 통해 SSD에 4K 파일을 캡처하고 재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Blackmagic Audio Monitor 역시 6G-SDI를 지원하여 전면의 LCD 패널을 통해 4K 프리뷰를 할 수 있다.



ATEM Production Studio 4K



Hyperdeck Studio Pro

※ 일정

10월 14일 부산
10월 15일 대구
10월 16일 광주
10월 17일 대전
10월 18일 서울

해당 구성의 모든 4K영상은 오로지 한가닥의 BNC 케이블을 통해 전송된다. 이로 인해 기존 다수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4K 시스템과는 달리, 간편하고 가벼운 4K 시스템 구성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한다. 또한, 로드쇼에서는 DaVinci Resolve v10의 색보정 워크플로우에 대한 간단한 시연 및 기술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수일 이내에 하이픽셀 홈페이지(www.hipixel.co.kr) 및 레오미디어 홈페이지(www.leomedi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문의 : (주)하이픽셀 Tel. 02-522-5591 / 레오미디어(주) Tel. 02-2081-1751~4

(주)포스티엄코리아

모니터링부터 저장까지 하나로, 하이브리드 ATOMOS SAMURAI BLADE & RONIN



포스티엄코리아가 공식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ATOMOS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신제품을 선보였다. IPS 디스플레이 탑재 필드 레코더 'SAMURAI BLADE'와 AC Power와 함께 랙에 장착 가능한 'RONIN'이다. ATOMOS의 제품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Recording, Monitoring, Playback 기능을 모두 구현하는 작지만 알찬 File Recorder이다. 모든 무 압축 영상소스를 Apple ProRes 또는 Avid DNxHD의 10-bit 4:2:2로 최대 220Mbps까지 실시간 저장하고, 원터치로 반복 재생 및 포커스와 노출 확인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촬영현장에서 사전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로그 기능과 카메라와 연동되는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 등 촬영과 후반작업의 편의를 도와주는 최적의 기술만을 제공하고 있어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과 함께 계속하여 그 돌풍이 예상된다.

SAMURAI BLADE

HD-SDI 입출력이 가능한 'SAMURAI BLADE'는 5인치 디스플레이 325DPI, 1280x720 해상도의 IPS 터치 스크린 패널을 채용한 것으로, 기존 제품 라인에 채택된 LED에 비해 선명 한 슈퍼 블랙을 표시한다. 디스플레이는 벡터 스코프와 파형 모니터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RGB 및 밝기 퍼레이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기록 매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2.5인치 SSD 또는 HDD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체 OS는 최신 5.0을 탑재, Apple ProRes 또는 Avid DNxHD 코덱으로 카메라에서 나오는 고화질 데이터를 장시간 기록할 수 있다.

기존 SAMURAI에서 mini BNC를 사용했다면 SAMURAI BLADE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NC를 탑재하여 신제품이 나오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ONIN

랙 마운트 HD-SDI 입출력을 가진 포터블 레코더 'RONIN'은 5인치 800x480 터치 스크린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녹화, 재생,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이며 연구소,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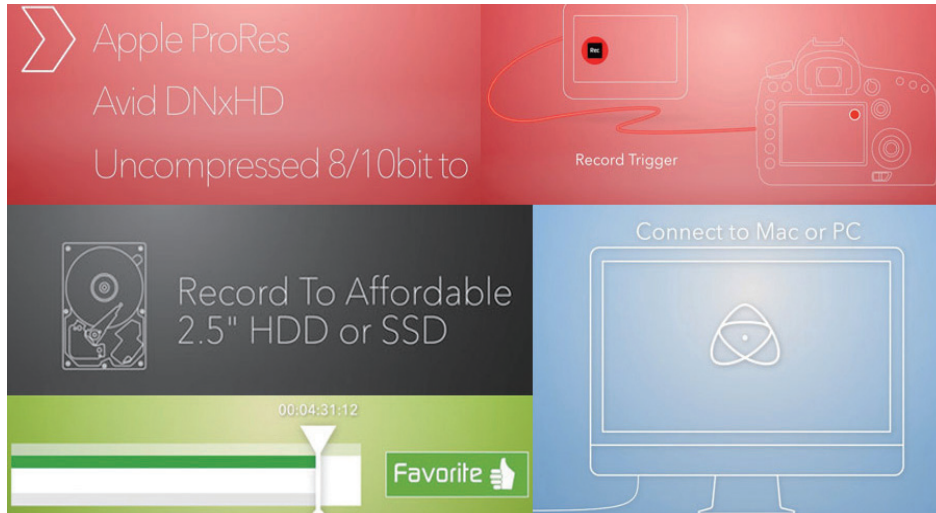


로덕션 방송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진 SAMURAI 필드 레코더를 기반으로 제작된 RONIN은 간편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Apple의 ProRes, Avid의 DNxHD로 캡처가 가능하여 전문적인 모니터링, 편집이 가능한 스마트 솔루션이다. SAMURAI 처럼 배터리 또는 DC 전원으로 작동이 가능하며 연구소 또는 스튜디오, 프로덕션에서 랙 마운트에 장착하여 사용시에는 AC 전원을 사용하여 작동할 수 있다. 추가로, RONIN 은 밸런스드 XLR 입출력이 가능하며 전면 패널 헤드폰으로 채널 모니터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를 장착하고 AC 전원을 연결시에는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다.

ATOMOS 제품의 돌풍 이유

디지털 편집 작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디지털 편집을 위해서 촬영된 영상을 편집용 Work Station에 맞는 File format으로 변환하여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일부 카메라 제작사에서는 SSD Memory 형태의 데이터 저장장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저장장치는 편리하긴 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일부 편집 장비에서는 역시 변환작업을 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ATOMOS에서 Apple ProRes, Avid DNxHD 코덱으로 저장된 영상은 Final Cut, Media Composer, Premiere, EDIUS, Vegas,





Lightworks 등에서 바로 편집 가능하다. ATOMOS 제품들은 소스가 8-bit 일지라도 항상 10-bit로 저장하며 테이프 또는 메모리를 통해 영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Source 영상 그대로를 받아 File로 Recording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오래되거나 헤드손상으로 제대로 된 영상 퀄리티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좋은 대안이 된다.



더 이상 비싼 메모리카드는 불필요

ATOMOS는 저렴한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예산과 사용에 제한이 있는 값비싼 플래시 미디어(e.g. SxS and P2)나 압축손실(MPEG-2)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일반 프로젝트에서는 저렴한 2.5 인치 노트북용 HDD를, 역동적인 촬영현장에서는 플래시 기반 SSD를 선택하면 된다. HDD는 현재 tape 보다 싸면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요즘 이러한 스토리지들은 굉장히 믿을만하다. 750GB/5400rpm 드라이브는 고품질 Apple ProRes를 최대 16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다.



ATOMOS 국내총판: (주)포스티엄 코리아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33-34 포스티엄빌딩 2층

연락처 (02) 354-6055 팩스 (02) 354-6056

고일상사(주)

젠하이저로부터 아시아의 '올해 최고의 파트너상' 수상



지난해 최고 영업실적 및 고객 서비스 등 높이 평가

지난 8월, 고일상사(주)(대표 조준영/www.koil.co.kr)는 독일 젠하이저(Sennheiser)로부터 '올해 최고의 파트너상'을 수상했다.

고일상사(주)는 각종 방송 및 공연용 유/무선 마이크 시스템과 음향제품뿐만 아니라 영화 및 시네마시스템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입, 판매 해 왔으며, 지금까지 29년 이상 젠하이저의 마이크 및 시스템 장비 부문의 국내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해오고 있다. 젠하이저에서는 매년 영업실적 및 고객서비스 등 비즈니스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 전세계의 가장 우수한 파트너에게 '올해 최고의 파트너상'을 수여하고 있다.

고일상사(주)는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젠하이저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으며 매출신장, 고객 관리 등 모든 비즈니스 측면에 큰 기여를 했다. 올 한해 고일상사(주)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주요 방송국 및 공연장에 젠하이저 시스템을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다.

젠하이저 아시아의 응치순(Ng Chee Soon) 사장은 "고일상사는 지난 28년간 방송/음향장비 시장에서 젠하이저의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이로써 해당 분야에서 젠하이저 제품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준영 고일상사(주) 대표는 "그 동안 고일상사와 젠하이저가 다져온 탁월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난해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시장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